

서울특별시의회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38
----------	------

발의연월일 : 2013년 7월 9일

발의자 : 김문수 의원 외 10명

1. 주 문

- 2008년 국제중학교로 지정된 대원·영훈중학교는 그 설립취지와 달리 초등학교의 조기 입시 열풍과 사교육의 증대라는 사회적 병폐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특히 성적조작과 뒷돈입학이라는 비리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학생들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대원·영훈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에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입학하면서 국제중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편법입학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 이와 더불어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성적조작과 뒷돈입학 등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영훈중학교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
- 이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대원·영훈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것임.

3. 이송처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회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 촉구 결의문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 육성, 장기 해외 거주 귀국 학생 연계 구축, 조기 유학 폐단 해결의 취지로 기존의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를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고시하였다. 5년이 경과한 2013년 현재 국제중학교 졸업생의 약 70% 이상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입학하는 상황이다. 즉 국제중의 설립취지는 훼손되고 특정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한 것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동시에 무상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서울의 대원·영훈 국제중학교는 학비가 1천여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비싼 학비로 인하여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부유층의 자녀만 다닐 수 있는 중학교가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서울의 초등학교 5~6학년의 평가체계는 3단계 평가(잘함, 보통, 노력요함)에서 4단계 평가(매우잘함, 잘함, 보통, 노력요함)로 변경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조기 입시 열풍과 사교육 과잉의 근원으로 국제중학교가 지목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중학교는 성적조작, 학생 강제 전출, 편입생 뒷

돈입학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영리추구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